

「한국인 19세 남성 건강지표」, 국가통계로 첫 공개

- 11년간(1996~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295만 건 분석
- 청년층 체중분포의 양쪽 쏠림 현상… 비만 비율 23% → 31%로 증가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1996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11년간의 병역판정검사 자료 295만 건을 분석한 「한국인 19세 남성 건강지표」를 국가통계로 등록하고, 앞으로 매년 우리나라 청년 남성의 건강 변화를 공개한다.

이번 통계는 대한민국 19세 남성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병역판정검사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한 것으로, 체질량지수(BMI),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간기능, 혈액검사, 정신건강 등 청년 건강을 보여주는 24개 지표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세대의 건강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분석 결과 19세 남성의 평균 체중은 69.44kg에서 73.37kg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체중 증가는 모든 청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상위 10%의 평균 체중은 11년간 7.8kg 증가한 반면, 하위 10%의 평균 체중은 0.6kg 증가에 그쳐 청년층의 체중 증가가 상위 집단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비만(BMI 25 이상) 비율은 23%에서 31%로 증가한 반면, 정상체중 비율은 49%에서 41%로 감소했다. 비만 그룹은 저체중 그룹보다 수축기 혈압,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모두 높게 나타나 심혈관질환과 대사질환의 위험 인자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이행에 필요한 신체 등급 판정을 위해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건강 상태를 검사하는 국내 유일 기관으로 대한민국 남성 전체의 건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신체등급 판정에 그치지 않고 국가 청년 건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인 19세 남성 건강지표」는 국가통계포털(KOSIS)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원시자료 개방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한 후 “공공데이터 포털”과 “데이터 안심구역”을 통해 개방할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한국인 19세 남성 건강지표」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 건강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국가통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병무청 보유 데이터 중에서 개인정보 침해 및 기밀 자료를 제외하고는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원천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끝>

※ 데이터 분석 개요

- 연구주제 : 병역판정검사 기반 19세 남성 11년간 건강지표 변화 분석
- 조사기간 : 2025. 4. ~ 2025. 11.(8개월)
- 분석대상 : 1996년생 ~ 2006년생(19세 남성), 병역판정검사 결과 295만 건
- 분석항목 : 체질량지수(BMI)·혈압·총콜레스테롤·중성지방·혈당·간 수치·혈액 검사·정신건강(우울장애) 등 24개 지표
- 분석환경 : 업무망 내 자체 빅데이터 플랫폼(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	병역자원국 데이터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용우 (042-481-2914)
		담당자	사무관	최성준 (042-481-2864)